**<토론 입론서> 반대측**

기존 데이터보다 너무 방대해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저장·분석 등이 어려운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빅데이터가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원유`에 비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기기가 돌아가지 않듯 빅데이터 없이 정보시대를 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현재 21세기 정보사회에서는 빅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4차 산업혁명에서 승패를 가르는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국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보화시대는 생산 자체보다는 생산기술의 보유,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식과 정보 등 무형 자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에 따라 국가 간의 경쟁이 갈리게 됩니다. 지적재산권, 정보화 사회의 유통물인 컨텐츠 분야 등이 발전해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무형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체제와 인력확보, 기술 투자가 정보화 사회로 가는 길이고 국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또 빅데이터는 기업의 생산비용을 절감해줍니다. 투자비용의 상당 부분을 빅데이터 관련 연구에 투입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시로,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은 장비에 유입되는 제품 순서를 조합해 최적화된 방식으로 생산 시간의 10%를 단축하고 수백억 원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cctv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범죄학 이론 가운데 ‘박수이론’ 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바닥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범죄도 동기와 기회가 있어야 일어난다는 뜻인데 핵심은 이중에 하나만 없어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cctv 등이 공공장소를 감시해주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절도 같은 범죄행위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cctv가 존재한다면, 존재 자체만으로 범죄기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빅데이터를 통해 고도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개인의 많은 양의 건강 정보를 수집한 뒤 빅 데이터로 분석하면 질병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많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진 않지만 뉴스나 음악 감상 등 생활 곳곳에 모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구현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시간‧구간‧지역별 이동 패턴, 승객 수요 등을 분석해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버스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목표로 버스노선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저희는 ‘국가의 공익보다 개인의 사생활이 더 중요하다’ 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